

화장품 산업, 글로벌 표준으로 공략하자

화장품 산업 표준화 국제심포지움 코엑스에서 열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에서는 4월 14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표준화 동향 파악과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화장품 산업 표준화 동향 국제심포지움”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심포지움은 「2008 서울 국제 화장품·미용박람회」기간(2008. 4.11~4.14, COSMOBEAUTY SEOUL) 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화장품 업계, 학계 등 200여명의 참석이 기대되는 국제적 행사이다.

※ '07년 “국제화장품 안전관련 심포지움”에 약 400명 참석

화장품 산업은 삶의 질 향상, 소비자의 미적 요구 증대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 및 품질 보증시스템 등의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일반공산품과는 별도로 화장품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어 화장품의 시험항목, 기준, 방법 등이 국가마다 상이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규는 국제무역상의 제한요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7)에서는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화장품 시장은 약 150억불(원화 144조) 규모로 소비자의 웰빙 선호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FTA 추진 등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른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의 선점 등 국내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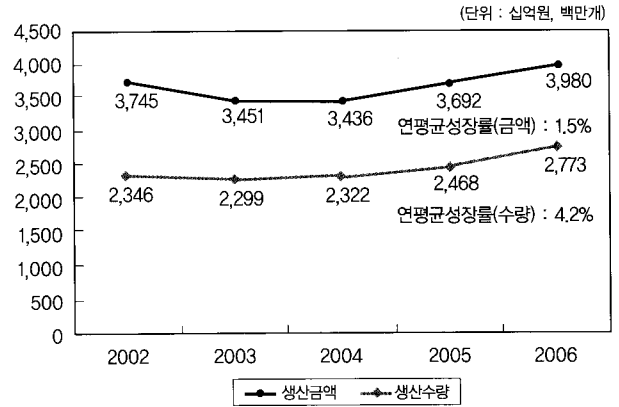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장변화에 따른 접근성 및 표준화 현황 등을 국내 화장품산업 현장에 알려 글로벌 마인드 제고를 통한 무역기술장벽 극복 등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특히 본 행사에는 ISO/TC 217(화장품)의 의장인 Richard Van Buuren 박사가 ‘ISO 화장품 표준화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국내·외 전문가 4명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세미나 일정

시간	일정	비고
13:30 ~ 14:30	경쟁력 원천, 이제는 기술표준이다 - 화장품 산업의 표준화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화학세라믹표준과 연구관 명 영 찬
14:30 ~ 15:30	ISO 화장품 산업 표준화 동향 - ISO/TC 217을 중심으로 -	ISO/TC 217 의장 Richard Van Buuren
15:30 ~ 15:50	휴식(Coffee break)	
15:50 ~ 16:50	중국의 산업 및 허가 제도의 변화	중국향료향정화장품공업협회 Liu Yang
16:50 ~ 17:50	국내 화장품산업의 ISO 대응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안 정 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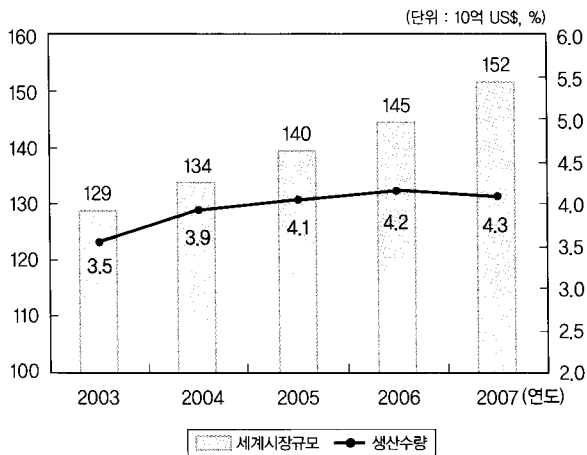
나. 국내 화장품 생산실적 변화



※ 자료 :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 산업 현황

가. 세계 화장품 시장현황



다. 2007년도 국내 화장품 주요 수출실적

(단위 : 1,000 USD, %)

순위	국가	수출실적	점유율
1	중국	96,952	31.9
2	미국	33,037	10.9
3	홍콩	31,109	10.2
4	대만	29,435	9.7
5	일본	27,711	9.1
6	싱가포르	15,034	4.9
7	베트남	8,322	2.7
8	이란	7,958	2.6
9	말레이시아	6,925	2.3
10	몽골	6,733	2.3
	기타 96개국	40,851	13.4
합계	총 106개국	304,067	100.00

※ 자료 : 관세청